

韓·日 高等教育의 현안 문제에 관한 세미나

徐 廷 華
(弘益大 教育學科)

지난 '87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韓·日 高等教育의 현안 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서울에 있는 올림픽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韓國大學教育協會가 그 동안 대학교육의 국제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과 유대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한·일 대학교육의 현안 문제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모두 12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측에서 6명, 일본측에서 6명 도합 12명의 발표자와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알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과 질의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논의된 내용들을 살펴 보고 그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1. 發表의 主要 內容

이번 세미나는 6개 영역을 다루었는데 그 영역은 ① 大學 行政과 經營, ② 大學의 社會的 機能, ③ 대학에서의 學生指導, ④ 대학에서의 教授機能 및 教育課程, ⑤ 대학에서의 教授方法

과 教育工學, ⑥ 대학 및 대학원의 研究機能 등이다. 이상 6개 영역에 걸쳐 韓國과 日本측에서 영역별로 각각 2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영역별로 발표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 行政과 經營

먼저 한국측에서 教育改革審議會 위원장인 徐明源 博士가 '한국 대학 행정 및 경영 改革 方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 논문에서 서명원 박사는 대학 행정 및 경영의 개혁을 위해 前提되어야 할 요소로서 大學 運營의 自律性과 財源 確保를 들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예리하고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서 1차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學生 定員 策定, 입학금 및 수업료, 선발 및 행정적인 절차 등에 주로 관련된 것들이며 이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공통되는 점이다. 또한 각 대학이 그 규모, 설립, 지역적 필요, 교육 이념 및 목적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직 구조 및 경영 방식 등에 있어서 거의 多樣性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교육 大衆化의 물결 속에서 秀越性을 추구하는 데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아울러 대학 행정 및 경영 구조는 너무 中央集中形態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교육 계획 및 정책 수립이 일부 몇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진 다든지 下向式으로 실천되는 것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교육 재정이 취약하여 교육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劃一性 대신에 多樣性, 폐쇄적 과정 대신에 開放的인 교육 정책 수립 그리고 硬直性 대신에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일본 臨時 教育審議會 고등교육 분과위원장이며 나고야대학 총장인 소이치 이이치마 教授가 '日本 大學의 組織과 行政'이라는 주제하에 일본의 國·公·私立 經營 體制를 명쾌하고 소상하게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日本 政府의 財政 支援 및 造成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전체 대학생의 75%를 수용하고 있는 私立大學에 대한 造成금이 취약하므로 대학의 存立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회의(faculty meeting)는 대학의 自律性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점이 많다.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고, 文部省의 法的 規制

는 再考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서의 융통성의 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大學協議會(university council)'를 설치함으로써 일본 고등교육의 개혁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2) 大學의 社會的 機能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題下에 梨花女大 李圭煥 教授는 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사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産業과 經濟發展을 위한 人力 養成, ② 地域社會人들을 위한 大學 開放, ③ 대학 교수, 직원 및 학생들에 의한 校外 僱仕 등이다. 대학의 교육적 봉사 기능이 '80년에 들어서면서 조직화되었는데 그 예로서 韓國放送通信大學의 역할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은 일반 대학과 별다르지 않으므로 앞으로 누구나 원하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비학점화 강의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自由大學(free university)'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일반 정규 대학들이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공식 교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계속교육을 더욱 확대·개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의 이꾸오 아마노 教授는 '日本 高等教育의 構造 變化'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등교육과 사회 변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

韓·日 고등교육의 현안 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양국 학자들은 대학 운영의 自律性의 폭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그 認識을 같이 하였다.



의를 전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고등 교육은 산업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大衆化 단계에 들어섰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산업계가 大學院 卒業者들을 많이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就業이 용이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대학 인구는 안정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8세 연령층의 증가에 따른 대학 설치 및 대학생의 증원이 진행중에 있다.

3) 大學에서의 學生指導

延世대의 李亨行 教授는 '大學 經營을 위한 政策 決定에서의 학생 참여의 성격과 범위'라는 주제에서 대학 경영에서 학생의 발언권 행사 방법과 그 정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 대학 경영에서의 학생의 참여에 대한 찬·반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 경영에서의 學生 參與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학생의 자유로운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제도적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만약 현재와 같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될 경우 대학에서의 학생 지도 프로그램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학생이 대학 경영에 참여해야 할 것인가 또는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조직 절차상의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있다.

한편, 일본 와세다대학의 다이조 가토 教授는 '일본 대학에서의 학생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심리학자의 視角에서 진단·분석하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정상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치열한 大學入試와 父母의 期待와 意思疎通의 기회 등의 관련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成就와 成功을 이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는 制限的이고 短期的인 것임을 확인한 후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제발을 소홀히 하게 되어 결국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듯 입시

압박이 과중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이유는 ① 과밀한 상황 속에서의 성공의 기회 제약, ② 기업체에서의 일류 대학 출신 채용 선호, ③ 평등 의식 및 치마 바람(the education-conscious mother), ④ 成就志向의 사회 구조, ⑤ 과도한 교육에 대한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4) 대학에서의 教授 機能 및 教育課程

'한국 대학에서의 教育課程의 문제와 개선의 方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高麗大 劉仁鍾 學長은 교육과정을 대학교육의 이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문제점들로서 ①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 결여, ② 내용의 중복 및 상호 관련성 취약, ③ 현재 또는 미래 사회의 요구 부응 미흡, ④ 교육과정 조직의 과도한 획일성, ⑤ 교양교육의 비효율적 구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교육과정은 學問的이며 專門의 관심을 適正하게 配合한 것이어야 하고, ② 보다 광범위한 학문에 걸쳐 교육과정을 재조직함으로써 학문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分科 지향 경향을 탈피하여야 하며, ③ 선택 교과를 늘리고 필수 과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再調整하고, ④ 학문 영역간의 효과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재조직하며, ⑤ 각 대학은 전공 교과와 교양 교과간의 구성을 분산적인 형태(dispersive completion)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히로시마대학의 카즈유키 키타무라 教授는 '대학의 教授 및 教育課程'의 주제 아래 일본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관련 쟁점들을 예리하게 분석·제시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교수들은 研究보다도 수업 활동을 덜 重視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규정되고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動機化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고 교육하고 자극할 수 있는 敎員들을 개발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대학에서의 教授活動 개선을 위한 教授要員 開發(faculty development)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5) 大學에서의 教授方法과 教育工學

‘한국 대학에서의 教授方法의 문제점’이라는 題下에 忠南大 金忠會 教授는 고등교육의 효과는 教授活動의 質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學習方式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 대학에서는 수업 운영에 있어서 講義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65%) 그 주요 이유로서는 ① 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② 學習集團의 규모가 아직도 過大하며, ③ 教授의 授業 부담이 過重하며, ④ 대학에서의 授業體制 開發 노력이 未洽하고 그리고 ⑤ 教授-學習媒體 및 資料 不足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課題로서 ① 授業體制를 開發하고, ② 수업을 위한 支援體制를 強化하며, ③ 教授-學習에 관한 研究 活性化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동경기술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다카시 사카모토 教授는 ‘대학에서의 授業 改善을 위한 教育工學’이라는 발표에서 事例研究 結果를 가지고 대학에서의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공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카모토 교수는 VTR, 마이크로 컴퓨터, 각종 비디오 자료 등을 가지고 그의 대학에서 행한 수업 개선을 위한 많은 실험 결과를 녹화하여 이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사카모토 교수는 통신과정, 개방대학, 방송교육 등을 포함하는 遠隔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학의 사회교육의 최근 동향을 분석·기술하였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에서와는 달리 일본 대학에서의 教育工學 活用이 低調한 원인들로서 ① 教授들의 수업 개선에 대한 관심과 욕구 미흡, ② 교육 연구에서의 교육공학 활용 연구 결여, ③ 교육공학에 대한 대학 사회에서의 가치 의식 부족, ④ 실험 연구의 어려움, ⑤ 연구 자금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6) 大學 및 大學院의 研究 機能

‘대학 및 대학원교육의 연구 기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울대의 趙完圭 教授는 대학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일야말로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대학원 연구 구조를 再組織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통합한다. 둘째, 대학원 과정에서 授業의 比重을 감소시킴으로써 研究中心으로 나가도록 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 기능은 산업체 및 다른 기관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근대적 대학의 存在 理由는 연구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으므로 연구 기금, 장학금, 기타 기부금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각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研究中心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나고야대학의 모리카즈 우시오기 教授는 ‘일본 대학원교육과 諸 問題點’이라는 발표에서 일본 대학원교육의 質과 量을 比較的인 觀點에서 分析 記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석사과정의 경우 자연계 및 공과계는 人文·社會科學 分野보다 훨씬 쉽게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주로 產業體 및 勞動市場과 잘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사과정의 경우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소위 ‘博士 실업자 현상(over doctor)’이며 다른 하나는 人文·社會科學 分野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의 어려움이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본 학생은 물론 외국 학생들에게 학위 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대학원생들을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實際의이고 專門의인 教育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석사학위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就業을 促進시켜야 할 것이다.

2. 韓·日 양국 高等教育의 懸案 문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제기, 부각된 韓·日 양국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 運營의 自律性 脆弱이다.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自律의인 풍토 조성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경우 대학에 대한 統制와 指示, 監督 등이 계속되어 왔다. 大學入試 문제로부터 教育課程 編成, 人事, 財政 기타 제반 學事 관련 행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간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日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 설치, 예산 조정, 사립 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 정부의 통제 가 아직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국의 대학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責任을 지도록 自律性을 신장시켜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대학교육의 質的 高度化를 추구하는 제반 條件 不備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量的 成長과 發展을 이룩하였으나 여기에 걸맞는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교육이 빈약한 수업과 매우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느슨한 대학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화·개방화·전문화 사회에 부응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수업 부담, 교육과정 편성, 교수 방법 등의 측면에서 행정·재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세째, 고등교육에 대한 財政 支援 未洽을 들 수 있다. 한국 대학의 경우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敎授·研究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財政 支援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학생 등록금에 매달리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 대학과 같은 형편에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예컨대 학부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사립대학과 협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학생당 경비, 연구비 지원 등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네째, 一流大學 選好 意識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盲目的인 大學 進學과 學歷 인플레이션상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누구나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適性보다는 성적 수준에 맞추어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고 또 일자리가 없어 就業難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도 一流大學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깔려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문 대학에 가려고 중등학교 졸업

자들은 再修를 하고 대학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일류대학생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 기회 균등 정책 그리고 동양적인 가치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中等敎育과 大學敎育의 接續, 청소년 비행 및 병리 현상, 박사 실업 자군 생성 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끝으로 社會·平生敎育에 대한 社會的 要求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계속교육을 받을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 및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쉽게 교육에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公式化되어 있고 융통성, 다양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成人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私的인 영리 추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여기에 부응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본래적인 대학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확대되고 있는 대학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3. 改善을 위한 原則 및 示唆點

한·일 양국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 다르고, 또 그 배경과 사회·문화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기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나 이번에 6개 영역에 걸쳐 발표된 12개의 논문들을 면면하게 꿰뚫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은 한·일 양국의 대학이 그 본래적 기능인 敎授, 研究, 社會俸仕 그리고 文化創造의 先導 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有意한 示唆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몇가지 원칙들을 정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學 運營의 自律性의 幅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살아 남고 새로운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自己更新 過程에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자율성

이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 자체의 자율성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으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각 대학은 그 이념과 교육 목표에 부응하는 特殊性 있는 風土 造成에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模倣과 복사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이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획일성은 資源의 낭비일 뿐이며 規模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더 이상의 자산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부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째, 대학 경영 방식, 교수 방법, 학생 지도 등 모든 대학 체제의 局面에 융통성이 스며들어야 한다. 대학은 군대 조직이나 일반 행정 기관이나 또는 기업체와는 달리 高度의 專門의인 조직이므로 기계적이며 폐쇄적인 또는 경직된 운영은 긴장과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대학 체제의 多元化를 기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을 조장해야 할 것이다.

네째, 大學 經營에 있어 구성원 參與의 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과 사무 직원이 함께 있는 複合組織이므로 그 주요 관심이나 표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教育目標 달성으로 연결,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實質의인 運營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教授들의 學務 行政 업무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教育의 質의 高度化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評價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쇄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適合性을 높이고 多樣化 하며 교수-학습 체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최신의 교육공학 메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교수 방법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섯째, 제반 教育 條件을 확충하고 財政 支援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教授의 수업 부담을 줄여 教授와 研究에 專念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을 늘리고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그 財源을 多樣化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 밖의 敎育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학의 벽을 넘어서 일반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은 대학의 본래적인 기능이기도 하거니와, 이는 대학 내부의 學問間 장벽을 제거하고 학과 또는 계열별 협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평생 학습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일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의미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업이기도 하다.

4. 結 語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현실적인 제반 여건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지향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대면 한국의 경우가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대학 분위기, 학생 정원 관리, 교수의 부담, 시설 및 설비, 대학 내·외적인 행정 운영 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외곽적이며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의 質의 수준 제고와 연구 기능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및 재정 등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인 제반의 물리적 조건과 행정 지원 등은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인식이나 관심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 대학의 주요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관심은 매우 類似하고 공통적인 측면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한·일 대학교육에 관한 세미나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호 협력을 통한 양국 대학교육의 개선과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고, 하나의 始發點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學問的인 交流와 실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욱 광범위하고 깊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